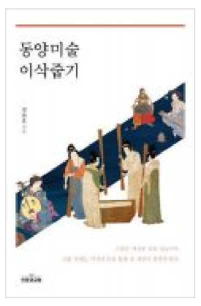
동양미술이라는 밭에서 주워 담은 알곡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동양미술 이삭줍기

김찬호 지음



저명한 미술사가 곰브리치는 '서양미술사'에서 "미술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미술은 미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특정 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투영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미술은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기나긴 시간 속에서 예술은 토속문화와 외래문화의 융합,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대, 현대라는 시기를 지나온 것이다.

비단 우리나라만 변화를 겪은 것은 아니다. 중국과 일본, 인도 등 동양의 나라도 저마다 역사 속에서 주변국과 교류 등을 통해 변모를 거듭했다. '미술이 세상을 보는 창'이라는 말은 이러한 사실과 무관치 않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의 미술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 경희대 교육대학원 김찬호 교수가 펴낸 '동양미술 이삭줍기'에는 동양 미술사조와 화가 이야기가 녹아 있다. 저자는 동양미학을 전공한 후 성균관대에서 '다산 정약용 서화미학사상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서양 미술에 인문학을 담아내는 작가이자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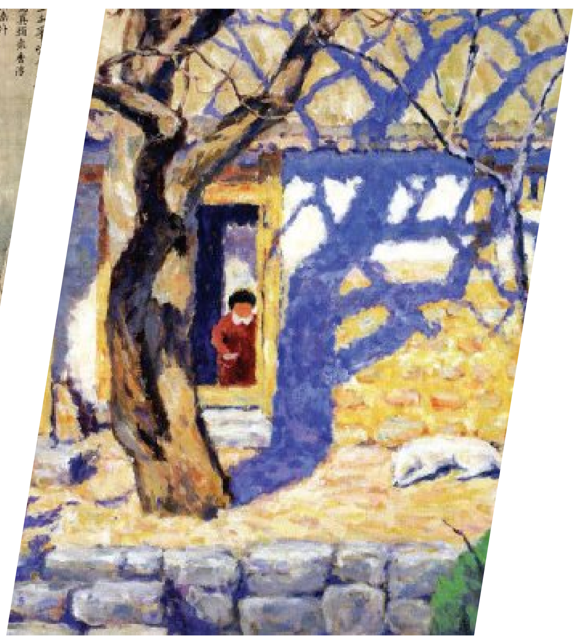
이번 책은 동양미술의 시기별 특징을 담고 있다. 각 나라의 시대적 의미는 물론 작가의 예술관, 작품에 드러난 창조성 등을 알기 쉽게 제시했다. 한마디로 "동양미술이라는 밭에서 일찍이 수습하지 못했거나 그냥 지나쳤던 알곡들을 한 소쿠리에 담아" 낸 것이다.

저자는 한국미술의 시원인 선사시대를 '생명의 노래'라고 본다.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시대부터다. 신석기대, 청동기시대를 거치며 집단의 토대를 이루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자연숭배신앙을 견지했다. 하늘 신과 땅 주술자를 연결하는 매개의 의미가 깃든 '농경문 청동기', 한국미의 원형과 시원인 '반구대 암각화', 생활방식과 미적 감각이 투영된 '빗살무늬토기'가 대표적이다.

고구려인들의 용맹과 기상이 반영된 '행렬도', 내세와 삶의 흔적이 담긴 '수렵도' 등은 당대 역사와 문화, 종교, 심미의식을 드러낸다. 지난 1946년 신라 무덤에서 발굴된 청동 그릇에는 '광개토대왕 호우명'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 호우명은 고구려 광개토대왕비문의 서체와 동일하다고 한다.

석굴암 석가여래좌상 (국보 제24호)

정선 작 '금강전도'(국보 제 217호)



오지호 작 '남향집'

저자는 백제 미술은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정치적인 격변과 수도 천도 시기 등과 맞물린 영향 때문이다. "백제 미술의 특징은 부드럽고 모나지 않으며 자연미가 넘치고 세련되었다. 이러한 특색은 5세기부터 7세기 중엽까지의 고분벽화·불상·와당·공예품·탑 등의 미술 전반에 걸쳐 볼 수 있다."

철학적 사유가 담긴 '금동대향로', 백제 서예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무령왕릉지석' 등은 백제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이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 중국의 남조 문화와 접촉하면서 화려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이룩했다. 정교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이 특징인 '금동미륵보살반가상',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기상과 역동성을 표현한 '천마도',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황남대총 출토 '금관' 등은 이 시대를 대표한다.

저자는 중국미술은 고대의 웅장한 건물과 유적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보이지 않는 정신적 유산이 투영돼 있다는 의미다. 유가, 불교, 도가 사상은 중국 문화와 예술 핵심이며 선진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중국 미술의 자양분이 됐다는 것이다.

일본은 외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개성적인 문화를 형성했다. 평화를 구하는 시기인 헤이안시대와 무로마치시대는 일본적 형식화가 두드러진다. 이와 달리 권력체계가 불안정한 시대인 아스카와 나라 그리고 패전 후에는 개방적 외향이 짙은 미술 양식이 출현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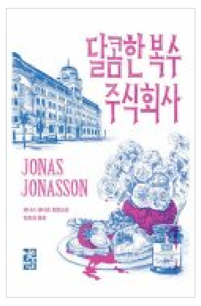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인도미술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포괄한다. 인도인들의 생활감정은 종교적인 현상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불교미술, 자이나교미술, 힌두교미술, 이슬람교미술에 깃든 조각과 회화 등이 그러한 예다.

〈인문과교양·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달콤한 복수 주식회사

요나스 요나손 지음, 임호경 옮김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의 작가 요나스 요나손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다. 스웨덴 출신의 요나손은 대학에서 스웨덴어와 스페인어를 공부했으며 15년간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미디어 회사를 설립해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지만 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위협당하자 돌연 회사를 매각하고 작가로 변신한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은 세계적으로 1천만 부가 넘게 팔렸으며 영화로도 제작돼 흥행 돌풍을 이어갔다.

이번에 펴낸 '달콤한 복수 주식회사'는 풍자소설이자 유머소설의 성격을 지닌다. 작가 특유의 문체와 말맛을 살린 문장은 독자들로 하여금 역시 요나손이라는 감탄을 하게 한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사는 빅토르는 교활하고 위선적인 미술품 거래인이다. 그는 비열한 방법으로 아내의 재산을 빼앗고 이혼한다. 나아가 창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케빈을 죽이려고 케냐 사바나에 데리고 가는 등 비인간적인 행태를 자행한다.

다행히 케빈은 원주민 치유사 올레 음바티안의 구조로 살아나고 이후 마사이 전사로 거듭난다. 하지만 성인식에 할례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도망치듯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온다.

소설의 전편에 흐르는 기조는 '복수'다. 작가는 이웃과 갈등을 빚고 있는 친구에게 복수 계획을 짜주다가 이번 작품을 떠올렸다고 한다. 복수가 지닌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복수 계획을 짜는 것은 효과적인 치유법이라고 여긴다.

〈열린책들·1만5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위와 고전

황현산 지음

지난 2018년 별세한 황현산 문학평론가는 평생 프랑스 근현대시를 연구한 불문학자였다. 교수, 번역가로도 활동했던 그는 사유가 담긴 지적인 문장으로 독자들을 매혹시켰다.

이번에 그의 작고 3주기를 맞아 그가 생전에 시민을 대상으로 남긴 최초이자 최후 프랑스 상징주의 시 강의 '전위와 고전'이 출간됐다. 책은 수류산방의 아주가리 수첩 제3권으로 나왔으며 19세기 중반 보들레르부터 20세기 초 아폴리네르까지 아우른다. 이밖에 책에는 베를렌, 랭보, 로트레아몽 백작, 발레리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국문학자 김인환의 해제, 생전과 작고 당시의 여러 모습들, 김정환, 김민정, 김원식, 성우제 등 문인들과 제자의 회고와 기억도 수록돼 있다. 황현산 선생 스스로 밝히듯 대학 강의실이 아닌 자리에서 프랑스 상징주의 시를 본격 주제로 삼은 첫 강의라는 점에서 당시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보들레르는 제2공화정 시대 파리에서 감각을 통해 감각 너머의 세계를 통찰하는 시를 시도했다. 이후 프랑스 시는 절대 순수를 지향하는 말라르메를 거쳐 발레리에 이르는 흐름과 한편으로 혁명 속 격렬하고 열정적인 랭보와 로트레아몽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차가운 지성을 토대로 상징주의 시 체험의 극한을 완성해 낸 발레리에서 상징주의는 종언을 맞는다.

저자의 강의는 원숙하면서도 새로웠다. 책을 읽다보면 독자는 마치 강의실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는 공감각적 체험을 하게 된다. 저자는 초현실주의를 비현실이 아닌 극대화한 현실, 현실 너머의 현실이라고 설명한다.

〈아주까리 수첩·2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곱 시선으로 들여다본 〈기생충〉의 미학

아시아 미 탐험대 지음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음식, 디자인, 감각, 상징 등 일곱 가지 키워드로 읽고 분석한 책 '일곱 시선으로 들여다본 〈기생충〉의 미학'이 출간됐다.

저자는 강태웅 광운대 교수, 최경원 성균관대 교수, 김현미 연세대 교수, 양세욱 인제대 교수, 김영훈 이화여대 교수, 최기숙 연세대 교수, 장진성 서울대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아시아 미 탐험대. 이번 책은 미술사·건축미학·인류학·영화학·문학 등을 통해 '기생충'을 들여다 본다.

양세욱 교수는 '짜파구리의 영화 미학'을 통해 '기생충'에 등장하는 다양한 음식이 상징하는 것과 먹는 행위를 사회문화적으로 살펴보고, 최경원 교수는 '무질서와 질서의 대비로 표현된 아름다움과 추함의 미학'을 주제로 영화에 묘사된 공간과 디자인에 주목한다.

김영훈 교수는 '영화 '기생충'에 나타난 감각적 디테일과 한국적 특수성'에서 후각, 촉각, 미각 등에 초점을 맞춘다. 기택의 가족이 공유하는 퀴퀴한 냄새, 가정부 문광이 복숭아털에 보이는 알레르기 반응, 짜파구리에 얹힌 채끝살 등을 통해 계급을 설명한다.

혐오의 감성에 주목한 글도 눈에 띈다. 최기숙 교수는 '영화 '기생충'과 혐오 감성'에서 혐오가 배우의 연기를 통해 관객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우리 삶으로 이어지를 분석한다.

아울러 강태웅 교수는 '대저택의 하녀들과 기생충 가족'을 주제로 이야기하며 장진성 서울대 교수는 '영화 '기생충' 속 '상징적인 것'의 의미와 역할'로 작품을 이야기한다.

〈서해문집·1만8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